



포커스

북한의 도발과 대북제재에 대한 이해

경 성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통일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포커스
북한의 도발과 대북제재에 대한 이해



통일 돋보기
사진으로 보는 '광복 직후, 분단의 역사 한 조각'



Today 남북
북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낼 '장마당세대'

▶ 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류 말고 북류, 북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인 되고 싶어"



통일 Talk
해바라기 만발한 통일 바라기 축제장에 놀러오세요!



좌충우돌 남한적응기
남한에 와서 누구와 어울리느냐도 중요해요!

▶ 통일로 통하는 즐거움!



느낌 있는 여행
8월, 현혹되다 섬진강 그리고 곡성



통일 웹툰
할머니! 이번 방학에 두벌자식이 놀러갈게요.



통일 레시피
북한 주민들의 '1등 보양식' 닭곰

웹진앱을 설치해보세요
웹진 이용 GUIDE



<p>통일 플러스</p> <p>포커스 통일 돋보기</p>	<p>통일 스토리</p> <p>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 Talk</p>	<p>남북공감</p> <p>Today 남북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p>	<p>민주평통365</p> <p>통일골든벨 NUAC 뉴스</p>	<p>즐거운 통일</p> <p>느낌 있는 여행 통일 웹툰 통일 레시피</p>	<p>심표, 느낌표</p> <p>이벤트 당선작 ① 이벤트 당선작 ② 이벤트 ① 이벤트 ② 이벤트 당첨자 발표</p>
--	--	--	--	---	---



북한의 도발과 대북제재에 대한 이해

정성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들로 인해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유엔 제재안과는 별도로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집행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금번 북한의 도발들을 중대하고도 시급한 안보위협이라 판단하고, 현재 제재의 실효적 효과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해 경제 및 외교안보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염원을 거부한 채 오히려 핵능력 고도화에 매진하며 제재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핵무기만이 김정은 정권을 보위할 수 있다는 퇴행적이고 그릇된 맹신 때문이다. 북한이 제재에 강력히 저항하는 이유는 제재의 고통쯤은 감내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결기와 오히려 이번 제재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처럼 무력해질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때문일 것이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의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중국에는 자신들의 핵보유를 용인할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의도대로 이번 대북제재 또한 과거처럼 서서히 무기력해질 것인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중대한 오판이다. 먼저 북한이 아무리 핵을 고도화하고 그들 스스로가 핵지위국이라 자칭하더라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즉 앞으로도 국제사회는 북한을 불법적인 핵무기 보유 노력국가라는 전제하에 김정은 정권에게 지속적인 압박과 제재를 부가할 것이다. 이는 당연히 김정은 정권의 생존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둘째, 금번 대북제재는 과거에 비해 그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국과 미국의 결기가 높은 것이 주된 이유이며, 제재효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보완되었거나 그 강도 또한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망을 조기 이탈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 그들에게는 한반도비핵화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국익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드 배치 결정이라는 갈등국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몽골에서 개최된 ASEM회의에서 강력한 대북규탄에 동참한 것이 그 예이다.



대북제재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호적 환경과 기대만으로 대북제재는 성공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성공적인 제재사례들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제재 지속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항상 유념해야만 한다. 아울러 제재 주도국이 제재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언제든지 제재공조에서 발을 뺐다는 사실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하지만 과거보다 제재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호적 환경과 기대만으로 제재는 성공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성공적인 제재사례들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제재 지속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항상 유념해야만 한다. 아울러 제재 주도국이 제재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언제든지 제재공조에서 발을 뺐다는 사실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이러한 엄중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전략적 방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될 것이다.



지나친 낙관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제재 조치들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도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안보적 도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역지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우선 현 상황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자제해야만 할 것이다. 즉 북한이 제재에 쉽게 굴복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기에 정책 전환을 할 것이라 단정해서는 안된다. 설사 북한이 유화 및 평화 공세를 전개하더라도 이를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라 단정 짓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현 국면에서 이를 당연시 해 우리의 정책적 대안을 희망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만 할 것이다. 금번 제재 조치들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도 해야만 한다. 제재적 조치들은 때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정책적 부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제재 조치들은 많은 사례들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향후 협상의 과정에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의 안보적 도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역지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제재 국면이 완화되는 시점이 도래한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이 일거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북한의 일련의 도발들에서 확인되었듯이 북한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우리의 안보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번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주한미군 반입을 둘러싸고 한중 간 그리고 미중 간 갈등이 노출되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 근본 원인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광복 직후, 분단의 역사 한 조각'



대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과 1950년 6.25전쟁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왜 우리나라가 분단되어야 했으며, 서로에게 총까지 겨누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아픈 과거사이긴 하지만 잊혀서는 안 되는 우리 역사의 한 조각임이 분명하다. 71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이 시기 간추린 역사를 사진으로 엮어봤다.



소련군 북한 진주

- 8월 8일 소련군 대일전 참전 개시
- 8월 26일 평양 입성 후 일본으로부터 경권 이양



8·15 해방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게 일본 항복
- 한국 광복

미군 남한 진주

- 일본군의 항복 접수를 논의하기 위해 9월 6일 미군 선발대 김포 공항 도착
- 9월 8일 주한 미 제24군 인천항에 진주, 일본으로부터 경권을 넘겨받음



미·영·소·중 신탁통치 결의

- 12월 16~25일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진행
- 임시 민주정부 수립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미·영·소·중 4개국이 신탁통치를 결의
- 12월 27일 발표 후 반탁과 신탁으로 좌우 대립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 3월 20일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 위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막
- 5월 6일 '미·소공동위원회' 무기한 휴회



1947

38선을 넘어...

- 46년 민간인의 38선 월경이 금지됐지만, 1947년 중반 38선 월남자의 수가 급증
- 복잡한 수속을 거쳐 월남 가능



제2차 마-소공동위원회

- 5월 21일 제2차 마-소공동위원회 개막
- 성과 없이 결렬, 통일 정부 수립 가능성 희박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 한국 총선 및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설치안과 정부수립 후 양군 철퇴안 가결
- 총선거 감시를 위해 위원단이 입국했으나 북한은 소련 군경이 입국을 막아,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키로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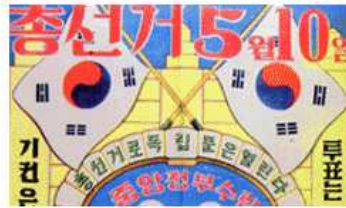
제헌국회 개원

- 5월 31일 제헌 국회 개원
-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헌 국회에서 선출
- 헌법, 정부 조직법 등 65개 법안 통과



5·10 총선거

- 5월 10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남한에서만 선거 실시
-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

대한민국의 출발

- 7월 24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 취임
- 8월 15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 수립 선포



한미관계 새출발

- 남한에서 미 군정 시대 종료
- 미 제24군단 남한 철수
- 1949년 3월 주미 한국 대사관 개설
- 1949년 4월 주한 미국 대사관 개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 9월 1일 총선, 최고 인민회의 개최
-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 12월 25일 소련군 완전철수 발표

1949

김구 암살

- 6월 26일 통일 독립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던 백범 김구 선생이 집무실에서 암살당함
- 중경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주석이자 한국 독립당 당수였던 김구 선생의 장례식 개최



1950

전쟁 전야의 38선

-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대한민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 미소 양군 철군요구
- 1949년 6월 30일 주한미군 철수 완료. (군사고문단만 잔류)
- 1949년 3월 17일 북한은 소련과 군사 비밀 협정을 체결, 군사 지원
- 3월 18일 북한은 중국과 상호 방위 조약 체결, 조선 의용군 수만 명을 인민군으로 편입
- 1950년 4월 소련은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 중국도 미국의 개입이 있을 경우 참전키로 약속
- 1950년 6월 25일 새벽, 선전 포고도 없이 북한군 남침 감행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연표, 우리역사넷 참조>

한류 말고 북류, 북한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인 되고 싶어

»»»»»» 바리톤 김동규 ««««««



“요즘같이 더운 날엔 헨델의 수상음악(Water Music)도 좋고 트럼펫과 같은 브라스 곡, 그리고 목관악기 곡을 들으면 시원하죠.” 오후 1시, 시내에서 만난 바리톤 김동규(상명대학교 석좌교수) 씨는 바쁜 일정으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지만, 특유의 중후한 목소리에 경쾌한 에너지가 가득했다. 가을공연을 앞두고 오케스트라 편곡작업을 하느라 하루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하고 가끔 밤을 새우더라도, 직접 만든 노래가 무대에 올라가고 멋지게 연주될 때 최고의 기쁨을 느낀다는 그는 더 없이 충만한 열정으로 ‘인생의 가을’을 준비하고 있었다.

🎵 늘 ‘변화무쌍한’ 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을이면 어김없이 자주 듣게 되는 노래가 바로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다. ‘세계적인 바리톤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면서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같은 대중적인 곡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가 정통클래식을 넘어 가요, 팝, 재즈, 샹송까지 모든 음악을 아우르는 크로스오버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 한국에 크로스오버라는 개념을 알린, 김동규 씨는 어렵고 딱딱한 클래식을 대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안겨줬다.

“똑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보다는 늘 변화무쌍한 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흐부터 비틀즈까지 다 좋아하고, 대중음악이라도 제 나름대로 편곡을 해서 부르죠. 현재 김정호의 하얀 나비를 편곡중인데 저의 목소리, 저만의 스타일로 대중음악을 클래식하게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 다양한 지식이 음악에 대한 판단력 높여



바리톤 김동규 씨는 최근 TV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서 소탈한 ‘인간 김동규’의 모습을 보여줘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입학-졸업하고 ‘꿈의 무대’로 꼽히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 스칼라 오페라극장’을 비롯해 유럽 등 세계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세계적인 성악가다. 그동안 지나온 여정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묻자 그는 3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순수한 열정으로 음악을 배워나가던 학창시절, 둘째는 라 스칼라 오페라극장의 오디션에서 합격통지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인생이 어떻게 변할진 모르지만 지금 후회 없는 인생, 아름다운 한 때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해요. 500년 전 음악부터 동시대 음악까지

하고 싶은 음악을 다 할 수 있고,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식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중년이 되는 동안 나 이만 먹은 줄 알았는데, 많은 지식이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총만감이 들죠. 그 다양한 지식이 음악에 대한 판단력을 좋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깊게 파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노! 그렇지 않아요. 결국 수백 가지의 음악도 모두 ‘음악’ 한 가지로 통합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큰 에너지가 생겨나요

김동규 씨는 잘 알려진 대로 성악뿐만 아니라 피아노, 색소폰, 드럼과 같은 악기 연주에 능하고, 모터바이크와 승마, 골프, 사진까지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긴다. 게다가 요즘에는 서예에 푹 빠졌다며, 힘찬 필치로 ‘群鷄一鶴’이라고 내려 쓴글씨를 보여줬다. “끊임없이 끝까지 도전하는 에너지, 특히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큰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그의 말에, ‘도전본능’이란 이름을 붙여봤다.

그의 가장 큰 도전은 ‘라 스칼라 오페라극장 오디션’이었다. 김동규 씨는 20대 초반 3천 달러를 쥐고 유학길에 올랐다가, 베르디국립음악원을 졸업하던 해인 1991년에 베르디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우승했고, 한국 성악가로는 처음 라 스칼라 오페라극장 오디션을 통과했다. 당시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오디션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아무도 모르는 황무지 같은 곳에 가서 도전을 했고, 평생 준비한 것을 펼쳐 보이며 내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이 정도 실력은 되는구나, 그걸 사회가 알아주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감이 넘쳤죠. 아주 큰 희열이자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다음부터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직업적인 관문을 통과하고 나니 프로페셔널해진 거죠.”



이후 김동규 씨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스라엘 등 세계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오페라의 본고장인 유럽 무대의 유명 오페라에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세계 유수의 지휘자, 성악가 등과 공연하는 등 10년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인간 김동규’로 사랑해준 한국 관객에게 보답하고 싶어

하지만 워낙 이른 나이에 데뷔를 했던 김동규 씨는 공연을 위해 유럽의 호텔방을 전전하는 생활에 회의를 느꼈고 이혼이라는 아픔까지 겪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심신이 지쳐 무대에 서는 것조차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때, 그를 따뜻하게 맞아준 건 바로 한국 관객들이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유명해지고 음악을 하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혼이라는 삶의 무게도 너무 무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한국에 와 보니 나를 인간 그 자체로 사랑해주는 관객들을 만나게 됐어요. 서양 무대에선 저를 음악인으로 보기 때문에, 공연이 끝난 뒤에야 박수를 보내곤 했지만, 한국에선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열렬히 환영해주시거든요.”

김동규 씨는 관객들이 자신에 거는 기대와 사랑이 큰 만큼, 매일 음악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공부를 중요시하는 그는 ‘수업을 받다가도 어떤 음악이 떠오르면 당장 그 악보를 구하고, 기어이 가사를 찾아 외웠던 학창시절’ 그대로의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



“사실 어릴 땐 음악에만 빠져있었지 공부가 재미있는지 몰랐거든요. 편협된 지식만 익혔으니까요.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모든 게 연관이 있더라고요. 근본은 다 인간으로 통하죠. 음악가라고 악보만 보고 살 게 아니라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채워나가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사는 게 재미있어져요.”



유럽에서 직접 본 EU통합과 동서독 통일

바리톤 김동규 씨는 매년 많은 무대를 선보이고 있으며,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음악회에서도 자주 관객들과 만났다. 2003년 평양농구대회 기념, 2004년 남북정상회담 기념 통일음악회에서부터 지난해 광복70주년 평화통일 콘서트까지, 다양한 무대에서 통일염원을 담아 노래했으며, 올해는 민주평통 평화통일홍보대사를 맡기도 했다. 김동규 씨가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것일까?

“남과 북이 합치면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죠. 제가 유럽에서 활동할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활동을 마칠 때쯤 유럽이 EU로 하나가 됐어요. 모든 지역이 ‘자국’이 된 거죠. 그러자 행정이 아예 달라져 버렸어요. 일례로 유럽의 몇몇 특정 극장에는 법적으로 외국인이 설 수 없었는데, EU가 되면서 유럽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허용됐어요.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 거죠.”

김동규 씨는 통합 전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비자 등 서류 준비하는 일이 90%를 차지할 만큼 복잡했지만, 유럽연합이 되면서 비즈니스나 취업이 매우 쉬워졌다고 소개하며,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통합으로 인해 그런 장점들이 생긴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동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던 날엔 바로 ‘아랫동네’인 이탈리아에 있었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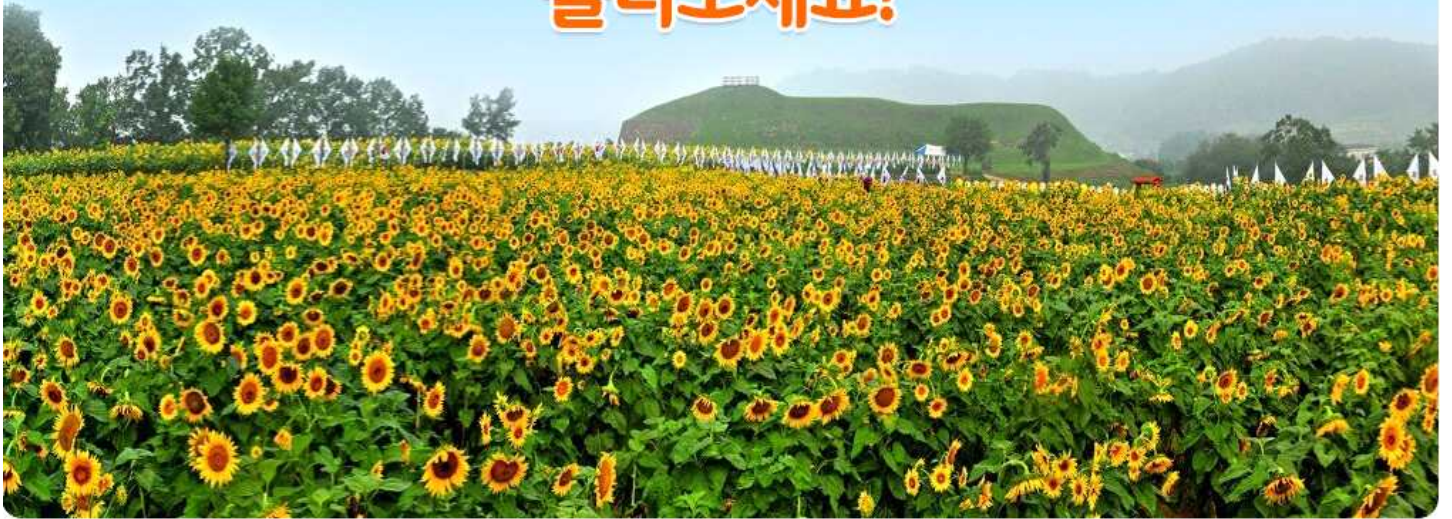
“난리가 났었죠. 무작정 망치를 들고 올라가서 담을 깨더니 차와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드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섬나라잖아요. 엄연한 반도인데, 북한을 통해 대륙으로 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고속도로가 뚫리고 철길이 열리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 보이겠어요. 단순히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폭 자체가 넓어지는 거죠. 우린 지금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같은 언어, 같은 혼을 가진, 같은 나라 사람이잖아요. 생각만 바꾸면 금방인데, 그게 안 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워요.”

김동규 씨는 보다 빨리 통일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이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부 정보를 자주 알려주다 보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분명 변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 김동규 씨에게 음악가로서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류 한류 그러는데, 한류 말고 북류를 타는 거죠. 북한주민들이 제 노래를 듣고 좋아해주면 통일 전후라도 제가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웃음)”

〈글.사진 / 기자회견〉

해바라기 만발한 **통일** 바라기 축제장에 놀러오세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비포장도로였다던 이곳 장남면(경기도 연천군). 80% 이상이 인삼농사를 짓고 사는 이 마을에 첫발을 디뎠을 때, 먼저 반긴 건 땅을 울리는 포 훈련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어휴, 우린 매일 같이 들리는 대북방송도 자장가 같은데 뭘”이라며 깔깔 웃지만, 정작 도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내 밭에 고추 따러 가지도 못할 만큼’ 불편한 세월을 반세기 이상 겪어왔다. 마을 공터마다 심어놓은 해바라기가 태양빛을 받아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던 날, 누구보다 더 통일을 바라는 장남면 주민들이 ‘통일바라기축제(8월 12~21일)’를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안덕현 자치위원장(58세)

인삼농사 경력 40여년. 수복 직후인 1961년에 들어와서 50년 이상 살았다.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을 거쳐 현재 장남면 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장님.



곽혜숙 부위원장(58세)

안덕현 위원장의 동갑내기 친구. 3살 때 기저귀 차고 왔다가 할머니까지 됐다지만 동창들에게 내가 장남면 지킴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여성리더. 9년간 부녀회장을 맡았고 현재는 면 회장으로 봉사중.

8월 토크참가자



유병호 축제위원장(48세)

장남면에서 태어나 심지어는 군 생활까지 인근 부대에서



이용환 간사(42세)

농협에 다니다가 편찮으신 부모님을 대신해 농사를 짓고자

했다는 장남면 토박이. 직장에 다니다가 인삼농사로 전업,
10년 가까이 동네청년회장 및 이장 등을 맡아 젊음을
불살라온 장남면의 동력(動力).

2010년 고향에 정착. 마을 일마다 뛰어다니다보니 정착
농사에는 신경 못쓴다지만, SNS를 통해 담 흘려가꾼 청정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신세대농업경영인.

☀️ 개성까지 30km도 안 되는 장남면의 '일상다반사'

e-행복한 통일 : 장남면으로 오는 길은 자유로가 시원하게 뚫려서 좋은데, 막상 와 보니 대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덕현 자치위원장 : 포 쏘는 소리는 미군 훈련장에서 나는 거야. 호로고루성(고구려 유적지) 바로 맞은편 강 건너에 훈련장이 있거든. 북한에서 쏘는 소린 줄 알았어? (웃음) 북한하고 가깝긴 하지. 장남면 소재지에서 개성까지 26~27km밖에 안 되니. 여기서 개성 송악산도 보여.

이용환 간사 : 가을 되면 북쪽에서 DMZ 안 갈대밭에 불을 놔요. 갈대가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러면 밤에 저 능선으로 빨간 불빛이 막 보이고 꺼면 재가 이 동네까지 날아와요. 대남방송도 찌렁찌렁 들리고요.



▲ 이용환 간사 집 앞마당에 떨어진
불은선전물

유병호 축계위원장 : 시야가 가리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니, 같이 맞불을 놓긴 하죠. 그 옆에서 소방관들이 불 끄러 대기하고 있고.

곽해숙 부위원장 : 지금도 새벽 5시쯤 들에 나가 일하다 보면 대남방송 나와. TV에서 북한이 뭐 했네 하면 시내 사람들이 막 연락을 하지.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거기는 괜찮냐고. 그런데 우린 그냥 우리 할 일 해.

안덕현 자치위원장 : 그전엔 비방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많이 했는데 요샌 그거 별로 안 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옛날엔 소리도 컸는데 지금은 강 건너에서 방송하듯이 작게 들리고.

이용환 간사 : 불은선전물도 많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100장 주워가면 도화지 1장이랑 바꿔주곤 했었는데. 지금도 가끔 비닐풍선 타고 떨어지긴 해요.

☀️ 통일바라기축제, 올해는 해바라기 개화 시기 맞춰 '방긋'

e-행복한 통일 : 마을에 와 보니까 남북한이 지금 대치 중이란 게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런 장남면에서 '통일바라기축제'를 한다니까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축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이용환 간사 : 마을에 해바라기를 심은 건 원당2리 이장님이 마을에서 젊은이들끼리 꽃을 한 번 심어보자고 해서 하게 된 건데, 꽃이 피니까 동네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전체에 심어보자고 했다가, 호로고루 성지를 해바라기공원으로 만들어보잔 아이디어가 나왔죠.





안덕현 자치위원장 : 어휴. 그런데 만 평 정도 되는 호로그루 성터가 옛날에는 돼지풀, 잡풀 투성이었어. 그걸 해바라기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니 좀 힘든 게 아냐. 또 들은 어찌나 많던지, 돌 빼낸 거 그 옆에 다 쌓아놔서, 증거품으로 다. 장병들이 도와줘서 함께 작업했지.

이용환 간사 : 여기 호로그루성은 고려 요충지였어요. 강 수심이 얕아 북한에 걸어서 갈 수 있었으니까요. 6.25 때도 그쪽으로 다 도강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LH공사 여직원분이 그 호로그루성 위에 올라 멀리 바라보더니 '여긴 북한과 가까우니까 통일바라기라는 이름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공원을 가꾸다 보니까 점점 예뻐지고, 지역경관도 괜찮아서 위원장님이 축제를 열어보자고 하셨죠.

안덕현 자치위원장 : 그런데 여기로 6.25 때 탱크가 도하하다 보니까, 못 오도록 성 바로 옆 1만 평 넘는 곳에 지뢰를 매설했어. 주민들 70~80% 동의서 받고 건의서 올려서 이제 지뢰제거사업이 거의 확정됐지. 장남면 최고 숙원 사업이 지뢰제거사업이거든. 통일바라기공원과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제거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거야.

이용환 간사 : 게다가 장남면은 6년근 고려인삼 주산지인데, 이 고려인삼이란 게 개성인삼 씨를 6.25 때 가지고 내려온 거거든요. 인삼 판로가 마땅치 않은데 '통일바라기' 축제를 하면서 함께 홍보할 수 있으면 좋죠.



☀️ 면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일구는 통일축제장

e-행복한 통일 : 올해가 3회째 열리는 축제인데, 준비는 많이 하셨나요?

안덕현 자치위원장 : 사실 1회 때는 해바라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 작은 모종을 내야 했는데 너무 큰 모종을 냈고 날이 가물어서 절반은 죽었거든. 작년 2회 때는 해바라기가 만개한 다음에 축제를 열다 보니 꽃이 다 저버렸지. 그래서 이번엔 광복절에 맞춰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중점적으로 행사나 공연을 하고, 21일까지는 방문객을 위주로 해서 해바라기공원으로 안내하려고 해요.

곽해숙 부위원장 : 맨 처음에 할 때는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느라고 같이 일 좀 하자고 해도 안 나왔어요. '바빠 죽겠는데 누가 풀 뽑고 해바라기 모심고 하겠어?'라고 생각한 거지. 자치위원회에서 품 팔아가지고, 아주머니들은 김매고 남자들은 풀 깎고 질통 메고 약 줘가면서 직접 다 하려니 힘들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나 정말 놀랐어. 50명이 나왔단니까. 새벽 5시부터 점심 무렵까지 밥 안 먹고 나와서 만 평을 작업했어. 그렇게 참여도가 좋은 거 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진 걸 알 수 있단니까.

유병호 축제위원장 : 첨엔 자치위원들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동네사람, 면사무소 직원들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성터 말고 사미천고나 요기 들어오는 관문까지 다 심었지 뭐. '해 주십시오' 안 해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먼저



와서 다 심었더라고요.

이용환 간사 : 우리는 주민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지원받는 건 오직 무대 장치와 몽골텐트 밖에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아이디어는 많지만 정작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해요. 앞으로 점점 더 키워나갈 계획이에요.



▲ 동네주민 50명이 자발적으로 나와 풀뽑고 김매던 날

안덕현 자치위원장 : 애로사항이 많지. 탈북민이나 이북5도민들도 초청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고, 유적지니까 문화재 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 없단 말야. 통일사생대회나 통일소원리본 매달기는 할 거고, 풍선아트도 직접 해보려고 주민들이 강사 불러다 배웠어. 통일미래센터가 인근에 있으니 청소년들이 교육 오면 이쪽에 방문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도 해봤고.

이용환 간사 : 스페인 안달루시아 해바라기밭처럼 예쁘게 꾸미고 싶고, 함안의 강주마을처럼 유명한 축제로 키우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SNS를 통해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청정지역이고 안보관광지도 많으니까 점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까요?



☀ 장남면 주민들이야말로 진짜 간절한 '통일바라기'

e-행복한 통일 : '통일바라기' 마을인데, 통일이야기를 안 하면 서운하시겠죠?

이용환 간사 : 저는 통일도 통일이지만 그 전에 도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손해가 엄청나요. 진짜 한 몇십 억 '까지는' 느낌이예요.

안덕현 자치위원장 : 가장 긴박했던 게, 작년에 태풍전망대 근처 중면 마을 면사무소에 포탄이 떨어졌을 때지. 고사포 포격으로 주민대피령이 내려서 요 밀 방공호에 주민들이 집결했던 게 가장 최근 기억이야.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 고라니는 물론 꽃사슴도 사는 장남면

▼ 지뢰가 매설된 인근 초지



▲ 저 멀리 능선 끝이 북한땅. 6.25 당시 이 강을 건너 사람들이 피란을 왔다.



유병호 축제위원장 : 8월이면 고추도 따야 하고 그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농사꾼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한 일주일 못 들어가게 되면 고추가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곽해숙 부위원장 :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이 더 필요해. 여기는 생계가 농사이고 전방에 농토가 많은데 못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애가 타겠어?

안덕현 자치위원장 : 외지 사람들이 임진강 주변에서 살고 싶은데 군사시설 보호지역이어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보니 불법 콘테이너나 하우스를 지어놓고 살아. 옛날에는 여기에 고란포구가 있어 화신백화점도 있고 나름 중심지였는데...

이용환 간사 : (주민들을 향해) 그런데, 장남면 사람들이 통일해바라기를 심고 축제도 하는데 이걸 북한에서 알까요? 접경지역에서 어렵게 사는 우리가 해바라기까지 심었잖아요.



▶ 지난 해 고사포 도발로 수확이 어려웠던 고추

곽해숙 부위원장 : 어휴, 그렇게 이해를 잘 해주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웃음).

이용환 간사 : 아니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통일공원에 해바라기를 심어놓은 걸 북한에서 알면 통일이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요?'라고요. (웃음)

곽해숙 부위원장 : 해바라기 심은 건 몰라도, 남한 역시 통일을 바란다든 걸 북한 주민들도 알긴 알 거야. 그 사람들 마음에 사랑을 심어줘야 해. 녹이는 건 사랑밖에 없으니까. 근데 기자 양반, 우리 세대에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e-행복한 통일 : 그걸 저에게 물어보시면... (땀 뻘뻘)

안덕현 자치위원장 : 사실 이게 공상인가 망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 너무 막연해서 내 생전에 통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 그래도 가끔은 통일이 돼서 번성했던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는 상상을 하긴 해. 마포 나룻배랑 인천 새우젓배가 들어왔다가 장단콩 심고 나가던 그때보다 훨씬 좋아질 거 아냐, 통일이 되면... 그런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글.사진 / 기자회견〉



북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낸

‘장마당세대’

조미영 (국민통일방송 라디오진행자)

‘장마당세대’를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시장세대’가 되겠다. 말 그대로 시장이 먹여 키운, 시장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지금 북한의 2030세대를 칭하는 표현이다. 먼저 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한 가락을 소개하려고 한다.

*목에다 두른 것을 빨간 돈가방 / 등에다 배낭을 메고서 마장으로 나간다. /
장하라 그의 이름 장사꾼 장사꾼 장사꾼 / 온가족이 모두다 칭찬한다. 우리의 어머니*

개사된 이 노래의 원곡은 ‘우리는 아동단’이다. 원곡에서 목에다 두른 것은 ‘혁명선열의 피가 물든 빨간 넥타이’고 등에 짐을 지고 훈련을 떠나는 장하 그의 이름은 ‘아동단’이다. 하지만 노래는 ‘장사꾼’으로 개사되고 북한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알 정도로 많이 불리고 있다. 당시엔 별 의미 없이 신나게 불렀지만, 지금 보니 북한 장마당세대의 모습이 잘 반영된 곡인 듯싶다.

체제 충성도 희박하고 돈 중시... 발육부진 심각

장마당세대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면 이상화 세뇌교육이 전 세대에 비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체제에 대한 충성도도 희박하다. 또한 뭐니뭐니해도 ‘머니’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외부 영상품이나 휴대전화 사용으로 외부의 소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개인주의적 성향도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발육부진이 심각하다.

최근 탈북하는 청년들의 얘기에 따르면 군대에서 남자 키 168cm정 도면 딱 좋은 키로 알아준다고 한다. 북한의 배급량이 붕괴된 1990년 이후 태어난 이들은 밥을 먹어야 할 시기에 풀과 죽으로 끼니를 때웠다. 만성적인 영양부족을 겪으며 자란 이들은 성인이라고 하기에 너무 작은 키와 북한식 표현으로 ‘광대뼈는 전진하고 눈은 후진’하는 얼굴형을 갖게 됐다. 이제 남북은 한민족이라고 부르기에선 외모에서부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배고픔이 늘 몸에 배어있던 이들에게 김 씨 일가 이상화나 체제선전 교육 따위는 먹혀들지 않았다. 요즘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청년 중에는 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임에도 이곳에서 초등학교 검정고시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북한에서 좀 살만한 집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예전 같으면 학교에 안 나오는 아이가 있을 경우 학급친구들이 데리러 다니기도 하고 선생님까지 집을 방문하는 조직생활만이 철저했지만 지금은 선생님에게 뇌물만 좀 주면 집까지 찾아오는 일은 없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장사하고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장마당세대는 ‘규범이



▲ 북한에 등장한 민간 산업 거리 판매대

나 통제마저 돈이면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사회주의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국가가 주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사회주의 체제는 배급의 붕괴로 법질서의 무력화 교권붕괴 등 여러 가지 준법이라는 개념들이 무의미해져 가고 있는 듯하다.

고위 간부보다는 무역회사 선호, 개인주의 성향 강해

북한은 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을 도로건설, 농촌지원, 유적지 건설 등 '돌격대'라 불리는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보내고 있다. 예전 부모님 세대들은 당과 수령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다짐으로 이런 곳에 자원하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이런 일은 거의 보기 어렵다고 한다. 돌격대에 나가더라도 당원이 될 수 있을지, 이 과정을 거쳐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철저히 계산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돌격대현장에서도 힘들면 나중에 처벌받을 일을 생각지 않고 도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 북한 청년들이 건강식품을 홍보하며 판매하고 있다.



▲ 북한의 농촌 청년들

북한의 유학생들을 가까이에서 알고 지낸 지인에 따르면 이들 또한 학교를 졸업하면 영사관이나 북한체제의 고위급 간부가 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이 돈을 벌 수 있는 무역회사 쪽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가족 중에 한 명은 꼭 인질로 북한에 두는 시스템 때문에, 자신이 졸업하고 북한으로 돌아가야 다른 가족이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공부할 수 있게 되는데도, 가능하면 중국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하려 한다는 거다. 요즘 장마당세대의 개인주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장마당 통해 초기단계 자본주의 경험... 외부 문화 동경

또한 우물 속 개구리처럼 체제의 선전만을 보고 들었던 기존세대와 달리 이들은 요즘 알판(CD)이나 USB에 담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음악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외부정보를 접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이해졌고, 이로 인해 당국의 선전과 자신들이 듣고 보고 한 것을 비교해가며 걸러내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요즘 탈북청년들 중에는 한국의 영상물을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외부의 문물을 접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청년들의 경우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나 적응도에 있어 빠르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마당세대'라는 이름은 한국에서 지금 북한 젊은이들을 구분하고 특정 짓는 표현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정작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장마당세대라는 이름을 만들어 붙일 만큼 북한의 청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장마당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자본주의 초기단계를 경험하고 외부 문화를 동경하고 외부정보를 갈망하는 이들이 북한체제의 변화까지는 아직 이르더라도 북한사회의 다양한 변화들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 북한 평양시 락랑구역에 있는 통일거리시장의 내부



영아(가명)는 7~8년 전 함께 남한에 도착한 동갑내기 상희(가명)와 오랜 친구가 됐다. 하지만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두 친구. 영아는 엄마를 모시고 온 뒤부터 학업에 전념했고, 상희는 북한에 계신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사채를 썼다가 '돌아오기 쉽지 않은 길'로 가버렸다.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을 헤아려보던 영아는 '남한에 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어울리느냐가 탈북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말한다.

눈썹하나가 뚝, 심장이 활랑활랑했어요!

여름방학은 학생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학연수나 대외활동, 여행 등 학기 중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성형'도 그 중 하나다. 영아는 대학교 1학년 2학기 첫 등교 날, 모르는 사람이 '언니'라고 부르며 말을 걸어와 깜짝 놀랐다고 했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학교에서 '왕언니'라고 불리는데, 누가 '언니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형을 한 거더라고요. 정말 의학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죠. 한편으로 한국은 성형수술을 너무 쉽게 한단 생각도 했어요.(웃음)"

미용도구 때문에 기겁을 했던 적도 있다. 신입생 때 선배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모여 저녁을 먹던 날, 술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맞은 편 친구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세상에, 눈썹이 하나 떨어져서 얼굴에 붙어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나 빨리 집에 가봐야겠다'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죠. 놀라서 심장이 활랑활랑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한에선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인조 눈썹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친구 볼 때마다 그때 이야기 할 하며 웃곤 해요."

"넌 돈을 모았을지 모르지만, 난 지식을 쌓았어"

영아는 엄마의 병간호를 위해 매일매일 학교와 병원을 왕복하다 보니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어 '언제 마지막으로 옷을 샀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겉으로만 화려한 삶'이 그다지 부럽지는 않단다.

"상희라는 친구와 남한 적응 교육을 받으면서 친해졌는데, 지금 개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탈북민은 남한에 와서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울리는데 따라 그 삶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인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루트를 통해서 안전하게 남한으로 올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만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상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영아는 얼마 전에 상회를 만났다. 상회는 차를 새로 뽑았다며 자랑을 하더니 대뜸 영아에게 물었다. “한국에 온 지 7~8년이나 됐는데 년(돈을) 얼마나 모았나?”

영아는 피식 웃었고, 그 웃음에 상회는 기분이 상했는지 뼈뚫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좋다고 웃냐? (가진 것 하나 없는) 네가 지금 웃음이 나오냐?”

그러자 영아도 여기에 지지 않고, 뼈있는 말로 되받아쳤다.

“상회야. 솔직히 말해서 난 네가 부럽지 않은 것 같아. ‘가방꾼’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네가 그동안 그만큼 돈을 모았다면, 나는 이만큼의 지식을 쌓았잖니. 우리 서로 좋게 보자.”



영아는 이상하게도 상회에게는 ‘나쁜 사람만 꼬인다’고 말했다. 아마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단다.

“북한에서 나왔을 때, 상회가 도망친 걸 알고 안전원들이 순식간에 집에 들이닥쳐서 엄마 아빠를 다 잡아갔대요. 상회와 부모님이 통화한 걸 녹음해서 들이대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이 걸려든 거죠. 엄마 아빠를 구해내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상회는 사채를 쓰게 됐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쪽(유흥업소)으로 빠졌어요.”

덕분에 상회의 부모님은 풀려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북한에 계시고 상회는 돈을 갚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 처음에는 ‘빚만 갚으면 그만 둘 거야’라고 말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으며 안타까워했다.

“아무래도 그쪽 계통 사람들을 만나다보니 도박, 술과 같이 안 좋은 것들을 가깝게 하는 것 같아요. 올바른 길로 가도록 충고해주고 싶었는데 잘 안 받아들여져요. ‘너 변했어’라고 말하면 자기는 ‘안 변했다’고 하지만, 뭔가 허황된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아 슬퍼해요.”

종교는 두려움의 대상, 하지만 저도 모르게 기도를...

사실 영아는 많은 탈북민들이 그러하듯, 남한에 오기 전 중국 농촌 마을에서 엄마와 숨어 살면서 노동을 해야 했고, 불안한 나날을 보냈었다.

“중국에서 살려면 농가에 얹혀살면서 일을 하거나 ‘시집’을 가야 돼요. 엄마는 제가 팔려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겨우 열일곱인데 어떻게 보내느냐’며 사정사정해서 3년간 농사일을 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닥칠 때마다 도망가기를 수차례, 두 발을 뺀고 잠들었던 날이 거의 없었던다. 설상가상으로 도망 생활 3년째 엄마에게 뇌경색이 발병했지만, 신분증이 없어 큰 병원에는 갈 수가 없었다.

“너무 시골이어서 의료시설이 안 좋았어요. 주사기를 꽂았는데 엄마는 깨어나지 못하였고 공교롭게도 그 무렵 저만 남한으로 오게 됐죠. 하지만 엄마가 눈 뜨는 걸 못 봤는데 어떻게 제가 남한에서 편하게 있겠어요. 공부나 문제가 아니라 빨리 돈을 모을 생각밖에 없었죠.”

이 과정에서 영아는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했단다. 무연고학생이다 보니 특정 종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했는데(42호 참조), 성가를 부르고 기도하는 일련의 종교의식들이 무섭게 느껴졌고, 북한에서 선교사가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종교를 갖지 않았던 영아였다.

“그런데 확실히 인간은 나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웃음). 알바를 하면서도 24시간 엄마 걱정밖에 안 드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나가 무릎 꿇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엄마를 무사히 데리고 오게 해달라고요. 지금은 안 다니지만 당시엔 매우 간절했기 때문에 큰 위안을 받은 것 같아요.”



남한사회에서 ‘영양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후 영아가 모아 보낸 돈으로 엄마는 남한에 올 수 있었고, 엄마는 비록 지금까지 병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병도 많이 호전됐다. 예전엔 영아의 간병 없이 거동도 제대로 못 하셨지만, 작년 가을부터는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니실 정도가 돼서 이전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며 좋아하는 영아. 한창 꾸미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 20대인데 병원과 알바, 학교 사이에서 쳇바퀴 도는 생활이 싫지 않을까?

“제가 남한에서 공부 대신 일을 했다면, 지금보단 훨씬 여유 있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도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고, 저 역시 남한사회에서 영양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국가가 탈북민에게 대학등록금을 면제해주는 것도 투자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

인적으로도 제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영아는 법학 공부에 관심이 많고 적성도 맞아서 로스쿨에 진학한 뒤 법조인의 길을 가고 싶지만, 학비를 마련할 자신이 없어 그 꿈은 한쪽으로 미뤄놨다고 했다. 대신 공무원시험과 취업을 함께 준비 중이다.

“그래도 요즘에는 시야를 넓혀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요. 탈북민이 3만 명이나 되잖아요. 어차피 ‘탈북민’이라는 단어는 항상 제게 따라다닐 거고, 이왕이면 북한이나 탈북민과 연관된 의미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어린 나이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힘찬 걸음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는 영아. 그녀가 바라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멋진 사회인’이 되어 꼭 다시 만나보고 싶다.

〈글. 기자회견〉

※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듣는 내고향 이야기입니다.



역사통일문제 최강자 가린 **통일** KBS **골든벨** 결선

'내가 남느냐, 문제가 남느냐!' 50개의 역사 통일문제를 놓고 벌이는 서바이벌 퀴즈대회 'KBS-1TV 도전! 역사 통일골든벨'이 지난 7월 24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다. 전국 173개 시군과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등 해외 17개 지역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학생들답게, 대회는 7월 말 중북 무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넘쳤다. 특히 올해는 녹화장 주변에 많은 시민, 관광객들이 몰려와 대회를 관람하면서, 통일·역사 문제를 다 함께 생각하고 풀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정답 척척, 알파고도 울고 갈 역사·통일 지식 능력자

골든벨 결선대회 당일 아침, 전국 및 세계 각지에서 치러진 예선전의 승자, 고등학생 100명이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앞 무대에 단정하게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다. 학생들은 광복을 기념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대형 태극기를 100등분 한 카드를 각자 머리 위로 치켜드는 카드섹션을 선보이며 대회를 시작했다. '전국 대회'라는 긴장감과 중압감을 풀어주려는 듯, 첫 번째 순서로 최근 '대세 걸그룹'에 합류한 그룹 구구단의 공연이 진행됐다. 아홉 명의 멤버가 들어서자 장내는 휘파람과 함성으로 가득 찼고, 감쪽한 군무를 따라 추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응원석에 앉은 '아재팬'들도 피켓을 흔들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 그룹 구구단의 공연

구구단의 공연으로 한껏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됐다. 한말의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박은식 선생의 '한국통

사'와 관련한 1번 질문을 시작으로 근대사나 통일, 기념일, 문화재, 북한말 등 다양한 문제가 출제됐다. 처음에는 문제를 다 듣기도 전에 답을 적는 등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지만, 뒤로 갈수록 오답자가 속출하며 빈자리가 늘어갔다. 마침내 14번 문제에 이르러 9명이 남게 됐고, 패자부활전이 시작됐다.

패자부활전 게임은 '고무신 받기'였다. '독립만세'를 외치러 아우내장터에서 나온 사람들 마냥 조선시대 한복과 가발, 고무신으로 분장을 한 학생 9명이 고무신을 뒤로 차내면 나머지 1명이 대바구니로 신발을 받는 방식이었다. '살려줘! 살려줘!' 아이들의 힘찬 외침 속에서 게임 참가 학생들은 몸 개그까지 선보이며 친구들을 부활시켰다. 고무신은 때로 너무 가깝게, 너무 멀리 날아가곤 했지만 '포수 출신' 학생이 마지막 골든고무신을 받아내면서 모두 부활할 수 있었다.



예능상 신설로 더욱 화려한 '끼와 재능' 선보여

한편, 올해 골든벨은 '예능상'을 신설해 재능과 끼가 있는 학생들을 함께 선발함으로써 재미를 더했다. 지역예선에서 예능상을 받았던 민준홍 학생(경주고 3)은 이상우 학생(대구계성고)과 TV 프로그램 '쇼 미 더 머니'를 연상시키는 '쇼 미 더 골든벨'에서 화려한 역사 랩배틀을 치르면서, 직접 작사한 역사 힙합을 들려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역사 선생님'이 꿈이라는 김효경 학생(동두천 보영여고 2)은 "재미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역사에 흥미를 갖게 하겠다"며, 개구진 춤과 함께 '뽀로로' 노래를 불러 큰 웃음을 줬다. 또한 북한 정치인을 똑 닮은 안호진(부산 대연고 1), 정재민(창원남고 2) 학생은 조선중앙TV에서 나오는 아나운서 흉내를 내서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송정윤 학생(세종 성남고 1)은 아이들 그룹 멤버들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멋진 춤을 선사했다.



▲ 윤주경 관장



▼ 이상우



▲ 김효경



▲ 김대현



▼ 송정윤

▲ 민준홍

예능상 수상자는 아니지만, 손민영 학생(울산성신고, 2) 학생의 경우, "전국노래자랑 지역예선과 골든벨의 날짜가 겹쳤는데, 골든벨은 학생 때만 출전할 수 있는 대회라서 노래자랑 예선출전을 포기했다"며 아쉬워했다. 대신 김대현 학생(경주고, 3)과 함께 현란한 트로트 춤으로 무대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다.

👉 이제부터 본격 대결, 대체 뭘이 답인디!!!

또 다시 한 치의 양보 없는 진짜 승부가 펼쳐졌고, 조선시대 역사나 남북철도, 6.25, 지명유래 등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됐다. 25번 문제까지 왔을 때 절반인 52명이 남게 됐고, '7.4남북공동선언' 문제에서 10여 명이 추가로 탈락했으며, 올림픽 문제에서 26명만 남게 됐다. '1948년 우리나라가 태극기를 들고 처음 출전한 올림픽의 이름'을 묻는 이 질문은 골프 국가대표 박인비 선수가 영상문제로 출제했으며, 이보다 앞서 문화재 관련 질문에서는 영화 '덕혜옹주'의 주인공 배우 손예진 씨가 영상을 통해 학생들과 만났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됐고, 38번 문제에 이르러 유일한 여학생이었던 서민정 학생(선화여고 2)이 '우리말큰사전'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서 최종 4인이 결정됐다. 그리고 다음 문제에서 권민재(예산고 1), 오우성(제주오현고 1), 정광진(영광고 2), 구산하(서천고 3) 등 네 학생의 답이 '삼국지'와 '삼국지연의'로 각각 반씩 갈리면서 정광진, 구산하 등 두 학생이 최종 2인으로 남게 됐다.



이후 구산하, 정광진 학생의 팽팽한 대결이 계속됐다. 미리 답을 적고 안정감 있는 표정을 보여주는 산하, 확신에 찬 미소를 짓는 광진이 답판을 올릴 때마다 방청석에서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근대문학 속 한자음을 적는 문제에서 광진이가 썼다 지웠다를 반복 하더니 결국 오답을 적어내면서 최종 1인이 결정됐다. 방청객에서는 '그래도 잘했다'며 격려를 보내왔고 산하는 퇴장하는 광진이를 힘껏 포옹해줬다.

👉 거침없는 '정답행진'으로 골든벨까지 갔지만...

최종 1인이 된 산하는 도중 찬스를 쓸 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남의 도움 없이, 어학연수 기회가 주어지는 글로벌 코리아문제까지 가볍게 통과했다. 마침내 50번 문제에 이르렀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골든벨을 울릴 수 있을까'하는 높은 기대감 속에 학생들은 전부 일어나 어깨동무를 한 채 산하를 응원했다. 마지막 문제 출제자로 나선 민주평통 유호열수석부 의장은 "답이 틀린 학생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이긴 학생을 성원해 주는 모습을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것 같다"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달라"고 당부한 뒤 문제를 읽었다.





마지막 문제는 안중근 의사의 유훈을 적는 것으로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즉 見利思義見危授命(견리사의 견위수명)이 정답이었는데, 산하는 2글자 틀린 답을 써내 아쉽게도 골든벨을 울리지 못한 채 최종 승자가 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산하는 우승 소감에서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고, 특히 남북한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정치학자가 되서 국제안보협력분야를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유독 녹화장 주변에서 대회를 구경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7월 말 불볕더위로 스태프의 뒷목이 별걸게 익었고, 오승원 아나운서는 중간중간 쿨쿨 흐르는 땀을 계속 닦아낼 정도였지만, 천안 시민들과 독립기념관 관광객들은 녹화장 주변을 빙 에워싸고 함께 문제를 맞혀보면서 박수로 응원을 보내왔다. 또한 아무리 부채질을 아무리해도 더운 날, 습기까지 가득 머금은 날씨에도 아홉 시간 가까이 자리를 지키면서, 내 자녀가 아닌 다른 학생들을 위해 힘찬 격려의 함성을 보내준 방청객들은 이날 '제2의 주인공'으로 전혀 손색이 없었다.



한국에 처음 온 은진이, 나로도의 효경이까지 이색출연자들

한편, 국내외 학생들이 모두 모인 만큼 이색 사연을 가진 학생들도 많았는데, 특히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조은진 학생(Ideal Mini School)은 '한국에 처음 와봤다'면서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눈길을 끌었다. 부모님의 한글교육과 주말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어를 배웠다는 은진이는 한국 방문 소감을 '족이더라고요'라고 표현해 웃음을 줬다.



전남 고흥의 나로도에서 온 효경(고흥고 2)이는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옥상에서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봤다고 말해 다른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효경이는 어판장에서 일하시느라 손이 늘 빨개지곤 하시던 엄마가 요즘 많이 아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착한 딸이 되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했다.



또한 '홍남철수작전'을 묻는 문제에서 홍준영 학생(부산 사직고 1)은 할머니에게 옛 이야기를 듣다가 역사를 좋아하게 됐다며 응원석에 계신 할머니를 소개했다. 할머니는 6.25 피란 때 할아버지를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고향인 평양 이야기를)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갈 뻔했는데, 손주 덕분에 이렇게 TV에서 통일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워했다.

골든벨대회 결선, 소감 한마디

이제희(이집트 Choueifat 국제학교 10학년) :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예선에서 17개국 22명이 결선 진출을 놓고 겨뤘 한국에 올 수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통일안보견학을 다녀왔는데 전망대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온통 수풀밖에 없어 평화롭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역사통일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오늘 수학문제에서 떨어져서



아쉬워요. 그래도 역사나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모르던 부분까지 알게 돼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제 꿈요? 현지에서 교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주고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오승원·김지원 아나운서 : 솔직히 요즘 고등학생들은 우리 역사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정말 역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어요.(오승원) 이렇게 깨어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걸 대중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뿌듯해요.(김지원)

지성진 선생님(영동고) : 작년에도 도전골든벨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학생들이 역사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돼 주는 것 같아요. 우진이 역시 대회를 준비하면서 역사공부를 많이 했어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안다는 말처럼,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송형래·남지현(학부모, 세종시) : 통일이요? 당연히 우리의 소원 아닌가요? 한민족이 다시 모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립과 갈등, 전쟁의 위협 같은 것들을 벗어나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은 우리 정운이(성남고) 세대에 훨씬 더 큰 기회를 열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글.기자희 / 사진.신영민>

NUAC NEW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제137차 운영위원회 개최 ‘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지지 및 국론결집 결의문 채택



민주평통은 7월 14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137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17개 시·도 부의장, 이북5도부의장, 여성부의장, 중국부의장, 유럽부의장, 분과위원장, 직능 운영위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업무 추진현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이 보고됐으며, 민주평통 발전과제 및 활동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국내는 물론 주변 국가 간의 갈등이 자칫 위기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온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일에 민주평통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7기 국내지역회의가 북핵위기 극복과 국론결집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했으며, 해외지역회의는 해외 자문위원들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이해하고 책임감과 용기를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를 활

성화하고 사업방향을 다각화하며, 유기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해 민주평통의 외연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7월 2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지지하고 국론결집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 세계 민주평통 여성리더들 행복통일의 서막 열 것” ‘2016 민주평통 세계여성콘퍼런스’ 개최



민주평통은 지난 7월 28~30일 미국 시카고에서 '2016 민주평통 세계여성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여성이 만드는 행복한 통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유호열 수석부의장과 김기철 미주부위원장을 비롯해 전 세계 민주평통 여성 자문위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북한 여성의 삶과 행복한 통일',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등 강의와 분임토의, 결과 발표 등이 진행됐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시카고 협의회 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카고에 전세계 민주평통 여성리더들이 집결함으로써 행복한 통일의 서막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민주평통 인권법제분과 · 법률지원단, 2016년 제2차 ‘북한인권전략회의’ 열어



민주평통 인권법제위원회(위원장 제성호)와 법률지원단(단장 문한식 변호사)은 7월 14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에 맞춰 '제2차 북한인권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별 협조방안과 북한 인권

NGO, 정부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4월 1차 회의에 이어 2차로 마련됐으며, 국민통일방송,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등 20개 북한인권관련 NGO 대표들과 인권법제분과위원, 법률지원단 회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환영사에서 "NGO 단체, 민주평통, 통일부 등이 협력적 유대 관계를 맺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북한인권의 기본가치를 우리 국민 속에서 확산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통일교육홍보분과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민주평통 통일교육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최명호)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재춘)은 7월 12일 한국교육개발원 회의실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 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최명호 위원장은 "독일은 통일을 이루는데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서독은 민주적 가치를 동독 주민들에게 심어주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우리도 미래세대 통일교육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 및 인력 교류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통일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교육방안 모색 △국민 통일의식 제고 및 통일교육 발전 방안 모색 △통일교육 강화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조정분과위원회 3분기 건의주제 채택 '국제환경 변화 대비한 대북·대내외 정책 추진방향'



민주평통 기획조정분과위원회(위원장 김용호)는 7월 11일 사무처에서 3분기 정책건의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대주제로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대북·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선정했다. 기획조정분과위는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과 위장 평화공세를 포함해 미국 대선, 브렉시트,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한·미 사드 배치결정 등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와 대북제재 국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선정했다. 또한, 지난 1분기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준비 추진방향', 2분기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을 건의한 연장선상에서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제재 효과 지속을 위한 정책방안을 종합해 건의키로 했다.

통일시대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등



▲ 충남지역회의



▲ 경북 청송군협의회



▼ 대전 유성구협의회

충남지역회의(부의장 김병목)는 6월 22일 독립기념관(관장 유주경) 밝은 누리관 강당에서 대북제재 이후의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충남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으며, 경북 청송군협의회(회장 김양태)는 23일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사회단체회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어 통일·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 정보를 제공했다. 같은 날 대전 유성구협의회(회장 김승수)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손영혜)는 유성구청에서 지역 여성단체 대표 및 회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16 지역 여성리더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를 열었다.



▲ 경북 문경시협의회



▲ 강원 평창군협의회



▲ 강원 고성군협의회&제주 서귀포시협의회

경북 문경시협의회(회장 이재석)는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와 함께 23일 '2016 문경시민을 위한 통일공감 안보강연회'를 열었고, 강원 평창군협의회(회장 김영해)도 이날 포럼회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강연회를 개최했으며, 강원 고성군협의회(회장 황병구)는 22~24일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회장 이경용)와 합동워크숍을 실시했다.

▼ 전북 전주시협의회



▼ 경기 김포시협의회



▲ 대구 중구협의회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균)는 6월 27일 삼천3동 주민센터에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탈북강사 초청 통일좌담회를 개최했고, 대구 중구협의회(회장 이진모)는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정기은) 주관으로 여성통일좌담회를 열었으며,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최선희)는 각계 사회단체대표, 김포대학교 통일동아리 학생 등과 함께 통일좌담회를 가졌다.





▲ 경남 밀양시협의회 부산 동래구협의회 ▶



▲ 경남 함양군협의회&전북 장수군협의회

경남 밀양시협의회(회장 윤정일)는 29일 대항기관장 및 시의회 의장, 지역 여성단체 회원 등과 함께 '여성 통일좌담회'를 개최했고, 부산 동래구협의회(회장 이태희)는 30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경남 함양군협의회(회장 이영재)와 전북 장수군협의회(회장 신봉수)는 이날 대항기관장 및 군 의회 의장과 함께 '함양군협의회 장수군협의회 합동회의'를 열었다.



▲ 전남 여수시협의회



▲ 경기 안양시협의회



▲ 경기지역회의

전남 여수시협의회(회장 박정일)는 7월 1일 '즐거움 통일가정 행복한 삶'을 주제로 '여성통일좌담회'를 열었고, 경기 안양시협의회(회장 이상호)는 8일 '북한인권 지도자과정 제10강 및 수료식'을 실시한 후 해단식을 가졌다. 경기지역회의(부의장 박해진)는 12일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 31개 시군 협의회장 및 제17기 포럼회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평화통일 리더스 포럼(3차)'을 개최했고, 전남 진도군협의회(회장 이기암)는 13일 진도군청에서 군민과 함께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진행했다.



▲ 전남 진도군협의회



▲ 경북 영양군협의회



▼ 강원 강릉시협의회



▲ 전북지역회의

경북 영양군협의회(회장 조동만)는 14일 영양군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고, 강원 강릉시협의회(회장 김하목)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이경지)는 이날 여성단체협의회, 자유총연맹 여성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릉시 여성 리더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를 개최했으며,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도 20일 전북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과 함께 통일좌담회를 가졌다.



2016년 통일시대 시민교실



▼ 전북 익산시협의회



▼ 울산 동구협의회



▲ 충북 단양군협의회

충북 단양군협의회(회장 정하모)는 20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고, 같은 날 전북 익산시협의회(회장 김영배)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국영순)는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29개 읍면동 임원진 및 회원들과 함께 '익산시 여성리더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울산 동구협의회(회장 지중찬)는 21일 동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 통일 공감 아카데미'를 열었다.

통일미래세대 육성



▲ 경기 여주시협의회



▲ 충남 논산시협의회



▲ 경남 사천시협의회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임영현)는 6월 23일 창명여자중학교에서 '2016년도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실시했고, 충남 논산시협의회(회장 송덕빈)는 24일 논산공업고등학교에서 '2016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열었으며, 경남 사천시협의회(회장 전재석)는 28일 사천수양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진행했다.

제주 제주시협의회

경기 광명시협의회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 교육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강덕부)는 6월 29일과 7월 1일 2차례에 걸쳐 제주동여자중학교, 조천중학교에서 각각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2016 찾아가는 통일교실'을 열었다. 경기 광명시협의회(회장 윤순갑)은 7월 2일 광명경영회계고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2016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영원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 서울 중랑구협의회



충남 당진시협의회



경북 예천군협의회

서울 중랑구협의회(회장 김상희)는 6일 해원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 통일공감 통일Talk'를 개최했고, 충남 당진시협의회(회장 윤수일)는 8일 송산중학교에서 탈북 통일안보강사와 함께하는 '청소년 통일교실'을 진행했으며, 경북 예천군협의회(회장 강무한)는 11일 예

천여자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 경북 칠곡군협의회



◀ 광주 남구협의회

▲ 경기 화성시협의회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현)는 11일 대교초등학교에서 '칠곡의 새싹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남북통일이야기' 평화통일 골든벨 행사를 진행했으며 광주 남구협의회(회장 서병연)는 12일 광주문성중학교에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홍진환)는 14일 '2016년 청소년 통일기행'을 실시했다.



▲ 충남 공주시협의회

강원 속초시협의회 ▶



▲ 부산 사하구협의회

충남 공주시협의회(회장 김기필)는 14일 한일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궁금한 통일이야기' 행사를 열었고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장세호)도 이날 속초여자고등학교에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개최했다. 같은 날 부산 사하구협의회(회장 배백식)는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등과 함께 산청 일원으로 청소년 안보·통일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 경남 남해군협의회



▲ 충남 계룡시협의회

▼ 전남 고흥군협의회



경남 남해군협의회(회장 최홍백)는 15일 창선중학교 학생, 교사들과 함께 공공교육사령부를 방문하는 안보체험 행사를 열었고, 충남 계룡시협의회(회장 김원태)는 이날 전쟁기념관과 청와대를 견학하는 '청소년 통일·안보체험 학습'을 실시했으며, 전남 고흥군협의회(회장 김경설)는 7월 14~15일 관내 3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캠프'를 열었다.

▼ 서울 강북구협의회



▲ 경북 의성군협의회



▲ 부산 서구협의회

서울 강북구협의회(회장 김송대)는 7월 8일과 15일, 2회에 걸쳐 신일고등학교,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에서 '2016년 탈북청소년과 함께

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개최했으며, 경북 의성군협의회(회장 오걸수)는 18일 의성여자고등학교에서 '2016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이야기'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류재형)는 19일 부산관광고등학교에서 '2016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공감 강연회'를 실시했다.

▼ 충남 홍성군협의회



▲ 전남 해남군협의회

▼ 경기 과천시협의회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이무형)는 20일 홍성군 청년단체 미래로 봉사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청년과 함께하는 통일 특투유'를 개최했으며, 전남 해남군협의회(회장 명채규)는 20~21일 관내 3개 어린이집에서 '2016년도 어린이 통일교실'을 열었다. 또한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21일 계명대 이상철교수를 초청, '통일외교환경과 대학생의 자세'를 주제로 한 청년 통일리더십아카데미 4주차 강의를 실시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전북 완주군협의회



▲ 대구 북구협의회



▼ 부산 영도구협의회

전북 완주군협의회(회장 정완철)는 6월 24일 완주군 삼우중학교에서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열었고, 대구 북구협의회(회장 이광우)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김경이)는 28일 관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찾아 건강한 출산을 축하했다. 부산 영도구협의회(회장 김용민)는 6월 30일~7월 1일 통일전망대를 비롯한 강원도 일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문화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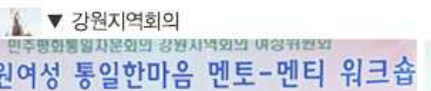
▼ 인천 강화군협의회

서울 노원구협의회 ▶



▲ 서울 강남구협의회

인천 강화군협의회(회장 박노중)는 7월 6일 관내 북한이탈주민에게 식료품을 전달했으며, 서울 노원구협의회(회장 신해두)는 7월 구청에서 '탈북청소년 멘토링 및 학습지원' 수료식을 가졌다. 서울 강남구협의회(회장 김정현) 청년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7월 8일 두산-KIA전이 열린 잠실구장에서 북한인권단체 NAUH, 여명학교, 북한이탈주민 등 약 100여명과 함께 경기를 관전하며 '통일기원 어깨동무 응원대회'를 개최했다.



▼ 강원지역회의

▼ 대구 수성구협의회



▲ 대구 서구협의회



대구 서구협의회(회장 최종석)는 9일 김해롯데워터파크에서 '어깨동무 멘토-멘티 여름캠프'를 열었고, 강원지역회의(부회장 박용성)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숙영)는 11~12일 '2016년 강원여성 통일한마음 멘토-멘티워크숍' 행사를 가졌다.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14일 2년 전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을 올린 이정숙, 조혜영 탈북민의 결혼식 2주년 기념파티를 열었다.



▲ 인천 서구협의회



▼ 서울 동작구협의회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경학)는 15일 세일고등학교에서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동아리 새터올 멘토 학생 및 지도교사 등과 함께 멘토 학생 역량강화 강연회를 개최했고, 서울 동작구협의회(회장 최성배)는 19일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 경찰서 관계자들과 계곡 여름나들이를 다녀왔다. 한편, 민주평통 의료봉사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24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관내 북한이탈주민 12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봉사단은 탈북민들에게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방과 무료 검진 및 진료를 실시했으며, 구급의약품함 및 격려품을 전달했다.



통일문화 확산



▼ 경기 시흥시협의회



▼ 경북 성주군협의회



▲ 경기 가평군협의회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헌)는 6월 24일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안보유적지 탐방 및 특강 등으로 구성된 '통일을 향한 힘찬 울림' 사업을 실시했고, 경북 성주군협의회(회장 김영조)도 이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천안함, 천안 독립기념관 등을 견학했다.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는 25일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대행기관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어린이, 학생, 군인, 지역주민 등과 함께 통일 음악회를 열었다.



▲ 대구 달성군협의회



▼ 강원 춘천시협의회



▲ 강원 철원군협의회

대구 달성군협의회(회장 김상문)는 7월 4일 박규하 대구지역부 의장 및 각 구 협의회장, 군내 초청인사 등과 함께 영화 '태양 아래'를 관람했고 강원 춘천시협의회(회장 이돈균)는 7~8일 5사단과 파주 도라산전망대를 견학했다. 강원 철원군협의회(회장 현대섭)는 8일 노동당사에서 '2016년 평화와 통일의 꽃씨 심기' 행사를 열었으며, 경북 김천시협의회(회장 최용남)는 14일 '2016 3대 가족 통일골든벨'을 개최했다.



▲ 경북 김천시협의회

지역 봉사활동



▼ 경남 진주시협의회



▼ 부산 부산진구협의회 대구 남구협의회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6월 23일 국가유공자, 전물군경 미망인회 등 보훈단체에 성품을 전달했고, 부산 부산진구협의회(회장 백옥자)는 27일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에서 개최된 순직·전물경찰관 유가족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유가족들에게 성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노판석)는 7월 1일 대행기관장과 보건소 건강관리 담당자, 방문간호사 등과 함께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해외 지역 통일활동





미국 LA협의회(회장 임태량)는 7월 19일 새로 부임한 이기철 총영사의 관저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이기철 총영사는 환영사를 통해 평화통일 정책수행에 그간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강조하고, 총영사관과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동포사회 발전과 통일역량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하며, 특히 동포사회와 차세대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기철 총영사와 민병용 민주평통 상임고문의 통일강연회가 진행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경승덕)는 7월 1일 통일의지를 지역 교민들에게 합창으로 전하고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SF통일 합창단(단장 서순희)'을 창단했다. 20여 명으로 구성된 SF통일합창단은 향후 북한의 탈북 동포들을 돕는 자선 행사와 통일에 대한 의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임원들은 11일 개최될 북한주민 자유회복 축구대회와 대북정책 강연회 등 행사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북유럽협의회(회장 최월아) 프랑크푸르트분회(분회장 권대희)는 6월 30일 카르벤 축구골프장에서 호국보훈의 달 통일강연회를 열었다. 국가유공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쟁 참전 호국영웅, 독립유공자 유족, 월남전 참전유공자, 동포사회 주요 인사, 총영사관 공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백범홍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가 '남북통일의 전제조건, 우리 사회 통합과 확고한 주인의식'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또한 강연 후에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성명서'를 발표한 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 노래를 합창했다.



8월, 현혹되다

섬진강 그리고 곡성

차마 한낮의 햇살을 마주하지 못한 채 감은 두 눈꺼풀 위로 연초록 그림자가 아롱거린다. 사실 누군가 '여가 뭐 그리 좋은가'하고 묻는다면 딱히 건네줄 말이 없다. 그저 호남 땅을 가로질러 225km에 이르는 먼 길을 설렘설렘 흘러가는 섬진강물과 깊고 푸릇한 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지는 유순한 눈길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분명, 강물을 양식 삼아 터를 키운 호남 땅 대부분의 풍경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땅을 사랑한 어떤 이가 고백했듯 하늘을 닮은 강이 흐르고, 그 강 아래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담한 마을을 이루며, 그 마을로 향하는 길이 있어 마음으로 온기를 품게 되는 고장은 쉽게 객의 마음을 현혹시킨다. 17번 국도를 타고 섬진강을 따라 전남 곡성으로 향했다.

속이 뻘히 드러나 보이던, 그 강물 '섬진강'

전라도 땅에서 나서, 지리산 자락의 청풍을 벗 삼아 경상도 남해로 흘러가는 섬진강은 그 속이 맑기로는 첫 손에 손꼽힌다. 의미 그대로의 맑은 정도야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도시를 휘돌아가는 섬진강보다 내강들이 더 맑을 것이다. 다만, 섬진강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곡성에서 하동까지 이르는 구간만큼은 누구도 그 속은 반질반질한 조약돌의 머리말이 뻘히 보일 만큼 맑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지리산 자락에서 솟아오른 물줄기가 더해져, 물길 역시 제법 깊고 넓다.

그 속 넓은 물줄기의 미끈한 움직임에 따라 유유히 흘러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곡성이란 이름 두 글자와 마주하게 된다. 지역의 3분지 2가 산세로 둘러싸인 고장은 조금만 햇살이 게으름을 부려도 금세 어두운 인상이 된다.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은 같은 영화를 보고 찾은 객이라면 흠칫 어깨를 움츠려도 여상하지 않을 분위기. 하지만 조금만 더 도심 안쪽으로 발길을 내밀어 보면 그 촉촉한 인상 너머 운화한 풍경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풍경 사이로 몇 주 사이 악착같이 제 몸집을 부풀리던 계절의 부피가 바람이라도 빠진 듯 조금 납작하게 느껴진다.





기차는 칙칙폭폭 달린다, '섬진강기차마을'

여름 더위가 한풀 기세를 꺾은 사이, 몽글한 하늘 아래 능글하게 가슴을 펴고 있는 열차와 마주했다. 곡성을 찾은 객이라면 반드시 한 번 쯤 들린다는 곳, 섬진강기차마을이다. 철거 위기의 구 곡성역 근방을 기차 테마 관광단지로 새롭게 조성한 곳으로, 옛 영화에서나 본 직한 까만색 자태의 미카3 129 증기기관차를 직접 타볼 수 있어, 인기다. 비록 10km 남짓의 짧은 구간이지만 증기기관차는 정말 칙칙폭폭 열심히 달린다. 특히 섬진강과 17번 국도, 물오른 여름이 한데 어우러진 풍광은 오래도록 시선을 떼기 어렵다.

이외에도 같은 노선의 폐 선로에서는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으며, 실제 영화를 촬영했던 영화세트장과 장미정원 등 볼거리 역시 적지 않다. 시기상 '5월의 여왕'이라 불리는 절경의 장미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조량 덕분에 10월쯤에는 가을장미도 볼 수 있다. 또한 마을 안에서 사라진 통일호를 개조한 숙소도 운영하고 있어, 긴 여행길이 고단했다면 잠시 쉬어가도 좋다.

미카3 129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익숙한 옛 이야기의 추억, '심청한옥마을'

곡성이 가진 여행지로서의 장점 중 하나라면 제법 이름난 관광지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일 것 같다. 심청한옥마을 역시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다. 증기기관차의 종착역인 가정역에서 곡성을 방향으로 향하다 만나게 되는 옛 마을은 이름 그대로 전래동화의 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한다. 효녀 심청이 아버지 심봉사를 위해 공양미 300석에 바다에 몸을 던진다는 내용의 '심청전'이 인근의 관음사 원홍장 설화에서 시작됐다 하여 이곳 곡성에 이야기마을이 조성됐다.

그 이유야 어찌 됐든 긴 산자락 아래 자리한 마을에는 열기설기 지푸라기를 엮어 올린 초가집과 기와집이 낮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어,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새로운 추억을 쌓기에도 부족하지 않을 경험을 선사한다.



이야기 동상



별무리 두 눈에 담아, 가슴에 남긴다 '곡성섬진강 천문대'

슬금슬금 걷다, 쉬다, 머물다, 떠남을 되풀이하는 동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제 갈 곳을 찾아 떠난다. 재촉하는 법 없는 곡성의 밤은 한낮의 열기가 제풀에 꺾이고, 민물고기의 비늘처럼 반질대던 섬진강의 반짝임마저 감감해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 주위가 온통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면 고개를 들어 이번엔 하늘을 올려 볼 차례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니 하늘에 박힌 별빛마저 총할 것이 기정사실. 혹시 고운 하늘 별빛을 조금 더 가깝게 두 눈에 담아 가슴에 남기고 싶다면 천문대 문을 두드리면 된다.

곡성섬진강 천문대에서는 3D천체영상, 낮 동안의 태양과 밤의 별을 관찰할 수 있으며, 별자리 강의로 들을 수 있다. 단, 그믐달이 뜨는 밤이 별을 관찰하기 가장 좋으며, 여름 이맘때는 오후 8시 반이 넘어야 제대로 별자리를 감상할 수 있다.



다시 맑은 아침, 무던했던 마음조차 떠남이 아쉬워 주춤대는 동안에도 강물은 흐른다. 계절도 흐른다. 여전히 뜨겁고 긴 한과 깊지 않은

밤이 그리 싫지 않다 여겨지는 것은 이미 이 계절에 현혹돼서 일 것이다.

참고로 동명의 영화는 이름만 빌린 것이 아니라 영화 속 인상적인 몇 장면을 이곳 곡성에서 촬영했다. 딸과 오토바이로 달리던 메타세쿼이아 길, 주인공이 들락거리던 경찰서 등은 그리 넓지 않은 곡성을 여행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글.권혜리 / 사진.신영민〉

할머니! 이번 방학에 두벌자식이 놀러갈게요.

글. 권혜리 / 그림. 이택중





어, 아닌데???



그래그래. 한 벌이든 두 벌이든
내 강아지 할머니 보러 언제 올래?



아 맞다! 할머니 저 내일
방학하면 놀러갈게요.



오냐! 내 두벌자식이
제일 좋아하는 옥수수
썰놓을 테니 꼭 와라~.



아이 할머니.
한 벌이라니까요!!





* 두벌자식(북한말) = 손자손녀(남한말)



최근 폭염과 북날이 겹치면서 삼계탕을 파는 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여름을 나려면, 몸을 튼튼하게 해 줄 보양식이 필요하기 때문. 남한에서는 삼계탕이 대중적인 보양식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닭을 고아낸 요리가 사랑받고 있다. 북한식 삼계탕인 '닭곰'은 백숙 요리의 일종인데, 살진 닭의 뱃속에 대추, 황기 등의 재료를 집어넣는다는 점은 남한의 삼계탕과 매우 유사하지만 요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진한 국물로 고아내는 삼계탕과는 달리 향아리나 그릇에 재료를 밀봉한 뒤 수증기를 이용한 중탕 방식으로 고아내는 것. 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닭과 재료가 어우러지는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요리재료

삼계탕용 닭 1마리, 찹쌀 300g, 대추 10알, 황기 50g, 견과류 100g, 황칠나무 50g

※ 기호에 따라 닭에 넣을 재료를 바꿀 수 있어요. 닭곰에는 원래 마늘이 들어가지 않지만, 입맛에 맞춰 마늘을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방법



1 찹쌀은 미리 물에 30분에서 1시간가량 불려준다.



2 닭의 꼬리와 목 부위에 퍼져있는 지방을 잘라내 손질한다.



3

4



3 손질한 닭의 배속을 찹쌀로 채우고 황기, 대추, 황칠나무 등의 재료도 함께 넣어준 뒤 실로 꿰매준다.



4 준비된 그릇에 찹쌀을 깔고 닭을 통째로 넣어 뚜껑을 닫는다.



5 그보다 더 큰 용기에, 닭이 담긴 그릇을 넣은 뒤 물을 부어 중불로 끓인다.



6 2시간가량 푹 고아 주면 완성.

〈글.사진 / 요리연구가 박민지〉

송어국부터 토끼탕까지 다양한 북한 보양식

북한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더위를 이겨내는 음식인 보양식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역별로 평양의 송어국, 개성의 추어탕 등 다양한 음식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인기를 끄는 요리는 닭고기와 개고기다. 특히,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단고기'라 부르는데, '영양가가 높고 맛이 달다'하여 이런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한다. 이외에도 토끼탕, 닭곰 등 우리에게겐 익숙지 않은 요리들이 많다. 하지만 생활 형편상 단지 '몸 보신'만을 위해 기르던 가축을 잡기는 어렵고, 대신 가족들이 돈을 모아 고기를 사다 먹거나,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찹쌀, 계란, 콩기름, 팥 같은 재료를 섞어 먹으며 기운을 차리기도 한다고 한다.



'통일 마음 SNS로 표현해주세요!' 대표 당선작

9명



오가닉부자

초등학생 때부터 통일포스터를 그렸던 우리가 이제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 그 아이들에게 분단된 국가를 물려주게 되었네요. 통일포스터를 그릴 적에는 지금 이 나이까지 통일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직도 전 세계 유일한 분단된 국가가 되어 힘들어하고 있네요.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은 통일된 나라에서 살 수 있겠죠?

한정화



저희 시아버님이 3살 때 피난 오셔서 고모님들은 북한에 계신데요. 시아버님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갈 수 없고 그리워도 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통일이 돼서 한 마음 한민족이 되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형제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각김밥

핵무기로 자꾸 도발하고 있는 북한. 북한도 불안해서 그런 것이겠죠. 북한 주민들도 남한 주민들도 계속되는 불안감 속에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대화로 풀어 점진인 통일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통일 파이아~!

고양이세수



좀 전에 영화 '태양 아래' 소개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저 영상 속 내용 자체도 완전한 북한 생활모습을 그린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저보다도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것 같아서 말이죠. 통일이 빨리 되어 어린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함나함나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되어 웹진에 소개된 북한 음식도 먹어보고 남한 음식도 만들어 같이 나눠 먹고 싶습니다. 남한은 이렇게 웹진을 통해 북한의 대해 알아 가는데, 북한은 잘 알지 못하겠지요? 이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경애



이념이 달라서, 사는 곳이 달라서, 서로에게 충구를 겨누고 많은 희생을 치렀음에도 아직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통일이 점점 늦어질수록 우리 서로 다른 생활과 이념의 간극으로 미국이나 중국보다 멀고 낯선 나라가 될 거예요.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야겠지만 남북 간 경제사회, 시민들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아기호랑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행복한 통일은 순국선열의 거침없는 메아리입니다. '대한민국 만세'에서부터 '행복통일 대한민국!' 기쁨의 함성을 그분들에게 반드시 돌려 드려야 합니다. 자유와 평화, 민족을 위해 몸 바쳐 희생하신 우리 순국열사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통일을 이루고 행복한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휘파하람



북한...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요즘 TV프로에서 탈북민들이 등장하는 예능 프로를 많이 봅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도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들이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루빨리 통일을 이뤄 남북한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습니다.



'호국영웅들에게 편지쓰기' 당선작

대한민국의 뿌리, 호국 영웅분들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20살 여대생 홍예진입니다. 조국을 위해 몸을 던져 하늘을 지키고, 땅을 지키셨던 호국영웅 한 분 한 분의 희생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런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가 되어 민족을 구해주신 호국영웅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또한 많은 학교를 세워주시고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셔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호국영웅분들의 민족을 향한 사랑, 희생과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학생의 신분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홍예진>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호국보훈용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이 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요즘 역사에 대한 의식과 민족의 자부심인 역사 교육이 많이 퇴색한 것 같아요. ' 역사를 잊은 민족에 게는 미래도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반성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이다 '이벤트'다 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늘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 간직하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되네요. 젊음과 청춘을 바쳐 국가와 민족을 희생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메스컴에서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하나 되어 세계 중심국가 대한민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겨레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가열차게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의 희생과 정신 또한 결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령>

추천!

여름철 이겨내는 복날 보양식

이번 달 '통일 레시피'에서는 복날을 맞아 북한의 보양식이 소개됐죠. 더불어 남한에도 삼계탕, 장어구이 등 복날을 대표하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통일이 된 뒤 북한에 가서 요릿집을 열고싶을 정도로 맛 좋은 남한의 보양식을 추천해 주세요!



인증샷이나 음식에 얽힌 사연, 혹은 본인만의 독특한 레시피 (예 : 된장을 풀어 만드는 된장 삼계탕) 등을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 응모기간 : 2016. 08. 16. ~ 2016. 08. 30.
- 응모방법 : [파일첨부] 버튼을 눌러 첨부 하거나 카카오톡(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수 : 3명
- 시상내역 : 문화상품권 2만원권

※ 앱을 통해 접속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행복한통일)로 응모해주세요.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가로세로날말퀴즈


Q. 독립운동가의 성함을 맞춰주세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의 성함을 맞춰주세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교환권을 쏩니다!!

(1~6번까지의 답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가로문제

- ① 독립을 향한 '순결한 희망'. 1945년 2월 16일 원인 불명의 사인으로 후쿠오카형무소에서 29세의 짧지만 굵은 생을 마감하였다.
- ② 대한제국 시기 항일의병운동의 평민출신 의병장.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에서 출생. 어린 시절부터 강하고 용감하기로 소문이 났으며 별명은 태백산 호랑이.
- ③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될 공부를 아니하는 것이오?" 뛰어난 조직력과 리더십으로 수많은 단체들과 학교를 설립했다. 호는 도산.

① ④					
					⑥
		② ⑤			
③					

세로문제

- ④ "김구 선생님. 제 시계는 어제 6원 주고 산 것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시간 뒤면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이 시계를 차시지요." 홍커우공원에서 일본군 전승경축식에 폭탄 투척.
- ⑥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라고 정의했다. 호는 단재.
- ⑥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2천만 민중아, 분투하여 쉬지 말라!"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으나 불발로 끝나고, 일본 경찰과 동척의 일본인들을 사살한 뒤 자결하였다.

▪ 응모기간 : 2016. 08. 16. ~ 2016. 08. 30.

▪ 응모방법 : 1~6까지의 답을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 당선자수 : 20명

▪ 시상내역 :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교환권

카카오톡(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픈 컨텐츠' 이벤트

번호	이메일 주소	닉네임
1	**u1975@naver.com	라 일 구
2	**o8318@naver.com	같은 하늘 아래
3	**allnew@hanmail.net	멋진 내 일

'e-행복한통일' 검색인증샷 이벤트

문화상품권 3만원	조건희	**gunhee@naver.com
-----------	-----	--------------------

닉네임	이메일 주소	닉네임	이메일 주소
한으뜸	**sdmema@naver.com	에헤라디아	**gpfkeldk@hanmail.net
조성재	**j1125@naver.com	사랑	**fkddl@gmail.com
조석희	**rehowl@naver.com	서동요	**emffpdl@hanmail.net
이윤정	**tistlyj@hanmail.net	요들레이	**rldkrl@nate.com
이상준	**sporter@hanmail.net	치룩치룩	**lksdjfls@naver.com
손톱깎기	**fifkddkfl815@naver.com	프린세스인서	**icoyon@naver.com
차병원	**100498@nate.com	아르저	**atrizjung@hanmail.net
응모함	**y9512@gmail.com	윤원우	**pine@hanmail.net
김길수	**ftnrla654@naver.com	조원표	**p1114@korea.kr
홍록기	**dtjrcjs@hanmail.net	유민형	**taeaa@hotmail.com
예진아씨	**wlsdkti@yahoo.co.kr	신희진	**nfnfaa@gmail.com
은하수	**dngkdn@naver.com	이수근	**afeaaaqq@gmail.com
김상중	**ddurma97@gmail.com	우희진	**1s1t20@hotmail.com
손석희	**rgmlths@hanmail.net	김규리	**r9348lmk@hotmail.com
김명자	**dwktls@naver.com	서민정	**salswud22@gmail.com

분리수건	**kaldl98@nate.com	이혜성	**tjddl@yahoo.co.kr
갑순이	**qtnsdl22@nate.com	이준하	**ca0125@hotmail.com
에코백	**o1004@hanmail.net	이민용	**aaazx@yahoo.co.kr
팔복이	**fqhrdl122@naver.com	나문숙	**faaaas@yahoo.co.kr
함무라비	**qwjs100@naver.com	김선화	**fuiasld@gmail.com
노트북	**tebook@nate.com	김선아	**df1004@gmail.com
asdf5678	**df5678@naver.com	알로에	**eenbee3@naver.com
미키마우스	**dntm@gmail.com	한민하	**3185@hanmail.net
통일사랑	**emffkgka@naver.com	김연아	**dkiki@hanmail.net
영금영금	**wlqo@nate.com	홍예진	**dywls102@gmail.com

 '웹진 만족도 조사(email)' 이벤트

번호	휴대폰 번호	번호	휴대폰 번호
1	010-**18-6473	9	010-**96-1833
2	010-**96-6196	10	010-**13-7962
3	010-**06-3180	11	010-**83-6660
4	010-**73-0556	12	010-**75-8871
5	010-**18-7317	13	010-**27-9998
6	010-**28-8560	14	010-**06-3180
7	010-**54-6866	15	010-**50-4437
8	010-**88-9326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